

한국 사회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행복 -플라톤의 『국가』와 노자의 『도덕경』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과 202221626 박서연

<목차>

1. 서론 - 한국 사회의 삶과 행복
2. 본론 - 플라톤과 노자를 통해 보는 지속 가능한 행복
3. 결론 -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서론

우리는 살아가며 행복을 방해하는 다양한 난관에 부딪힌다. 이러한 난관으로 인해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며, 행복을 찾아 끝없이 방황한다. 하지만 부, 인간 관계, 노동 등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은 시대와 공간을 넘어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 세대는 유독 높은 자살율과 낮은 청소년 행복률 등으로 행복과는 떨어진 모습을 보인다.

가령 우리 나라는 전형적인 농업 사회로, 계절마다 부지런히 노동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의 모습 중 지금의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품앗이’라는 풍습을 통해 서로를 도왔던 것이다. 실리적 이익을 취하려는 현실적인 이유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풍습을 통해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핵심적인 사항은 당시엔 힘든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 나갈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품앗이를 통해 공동체적 연대의식과, 공동노동의 결속을 더욱 연대할 수 있었다.¹ 당시의

¹ 강수돌, 한국 사회에서 일·노동 - 지속 가능한 행복의 조건, 본질과 형상사, 2007, p45.

공동체적 삶이 행복을 가져다 주고, 현대의 개인주의적 삶이 무조건의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인들은 동일히 분주한 삶 속에서 서로가 고립되어 서로 상호 작용을 하지 못하기에 문제점으로 자리잡는다.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은 일로 연결된 비즈니스 관계일 뿐, 자신의 개인적 삶의 영역의 침범은 허용되지 않는다. 과거엔 품앗이를 통해 인간적 관계를 노동으로 끌어와 연관시켜내는 것이 중요했다면, 현재는 일과 관계의 철저한 분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분법적 체계 안에서 우리는 사람 간의 관계를 삶의 가치에서 배제시키고 그 대신 노동의 능력치를 향상시킴으로써 부를 얻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의 삶을 억압하는 고통을 감수하고도 힘겹게 살아나간다.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는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정작 ‘삶’ 자체에는 무관심한 사람이 된다. 노동을 위해 살아가고, 노동이 살아가는 최우선의 가치로 변했으며, 자신의 직업과 연봉이 곧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수단이 되었다. 배움을 시작하는 청소년기의 학습의 목표는 취업이 되고, 직장인은 자신의 쓸모를 위해 권리의 위협에도 단지 견디어 나가며, 은퇴한 사람은 부산물 취급을 받는다. 부에 대한 잘못된 믿음은 대다수의 우리들을 고되게 할 뿐,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삶이 아닌 타인의 것으로 질주하고 있는 우리는 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극도의 경쟁사회에 놓여져 있기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단정지어 생각한다. 지금껏 우리가 그토록 행복을 쫓으면서도 내면의 통찰이 중요한 가치로 부상했던 적이 없었고, 자신이 경험하는 한 세대만을 보고 짧은 경험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행복은 얻기 위해 노력하고, 쟁취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매순간 존재하는 행복을 행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삶의 지혜와 용기에 달려있다. 플라톤과 노자는 행복에 대해서 현대의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삶의 요소들을 정의한다. 여전히 뻘한 내용은 삶의 진리라 교육되고, 그에 대해 현실적인 사실라고 주장되는 반론은 우리 사회의 불문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무언가를 향해 질주할 여력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만약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꾸어 낸다면 다시금 행복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안고 본고는 플라톤의 『국가』와 노자의 『도덕경』을 배경으로 그들이 주장한 행복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행복을 실현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대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보고자 한다.

2. 본론

플라톤은 행복을 세가지 범주로 나누고, 그 자체로도 좋고 결과 또한 좋은 ‘정의’를 추구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플라톤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플라톤은 정의를 국가의 관점에서 넓게 본 뒤 이를 개인에게 적용한다. 국가에서 상위의 계급에 위치한 통치자는 지혜 있게, 수호자는 용기 있게, 일반 시민들을 일컫는 생산자는 절제 있게 삶을 살아야한다. 이를 개인의 영역에 적용하면 개인 내면의 지혜, 용기, 절제의 덕목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과 같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는 현대인에게는 생소하다. ‘절제’의 키워드는 우리의 삶에서 경기 불황이 지속되니 돈을 아껴야 한다는 등의 까닭으로 자주 나오는 키워드이지만, ‘용기’는 중요한 자리가 아니면 일상적으로 거론되는 키워드는 아니고, 이 중 ‘지혜’는 현대에서 거의 거론되지 않는 키워드이다. 그나마 자주 거론되는 ‘절제’ 또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강제되는 것일 뿐이기에 플라톤이 주장한 절제의 덕목은 현대에서 거의 실현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이 욕망에 잠식되어 지혜롭게 삶의 행복을 바라볼 줄 모르고, 용기 있게 이에 헤어나와 자신의 길을 가기 보다는 남들의 길에 휩쓸린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서적 문제들은 바로 이러한 양상에서부터 비롯된다. 우리나라의 최근 문제점은 ‘평균’이 사라지고 공동체가 점점 양극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실질적인 소득의 문제가 아니다. SNS를 통한 작은 일상까지의 공유는 모든 부분에서 부와 빈을 구별하게 하며, 공동체가 점점 개성을 잃고 극도의 부를 가진 특정인에게 개인화되게 한다. 이는 부를 삶의 단일한 기준으로 설정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문제점에서 비롯한다. 플라톤의 관점에서는 ‘지혜’가 가장 상위에 위치한 덕목이 되어 이것을 중심으로 세가지 덕목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하지만, 현대에서의 지혜는 이익을 가져다 주진 못할 망정 오히려 노력을 가하는 지혜를 쓸모없는 가치로 전락한 것이다. 지혜는 부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위의 문제와 같은 정서적 문제 뿐만 아니라 이상기후로 인한 전지구적 문제, 취업 난황으로 인하여 청년층의 취업 ‘포기’현상, 머지않아 소멸 상태로 이어질 저조한 출산율 등 실질적인 문제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 앞에 이의 해결책으로 ‘지혜’를 갖추고 세상을 바라볼 것이라 조언하는 것은 굉장히 사변적이고,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 이의 지나치게 이상적인 말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왜 우리가 지혜를 이상적인 말로 밖에 해석하지 못하는 지에 대해 내면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진정으로 지혜를 추구해본 적이 없다. 지혜는 곧바로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고, 지혜를 얻는 과정에서는 많은 노력이 수반되며, 또한 확실하지

많은 지혜를 추구하면서 실리적으로 잃게 될 것에 대해 많은 용기가 필요하기에 지혜를 우리의 상식적 기준에서 쉽게 재단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의 낮은 독서율과 높은 쇼트 플랫폼 이용율을 통해서만 봐도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려는 것과는 동떨어져 있으며, 단순한 쾌락 혹은 욕망에만 매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욕망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하지 못하는 가치에 대한 열망과 집착으로 번민하지만, 지혜를 갖춘 사람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지혜를 통해 자족할 수 있으며 남에게 덜 의존한다는 플라톤의 주장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선과 닮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선이 되기 위해 지혜와 용기를 고려하려고 하지도 않는 태도는 불행한 삶을 이끌어낼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살아가며 지속 가능한 행복을 경험하며 뜻깊은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노자 또한 플라톤과 같지만 사뭇 다른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았다. 노자 또한 플라톤과 동일하게 세속적인 가치들은 결론적으로 불행과 고통의 원인임을 주장하였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플라톤은 지혜를 얻을 것을 강조했다면 노자는 그러한 진리는 없으며 ‘도’, 즉 자연이 돌아가는 순리에 맞추어 살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도’란 학문적으로 닦아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닌, ‘하지 않음의 함’이라는 선뜻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노자의 철학은 플라톤과 같이 실천하기 어려우며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플라톤의 정의와 같이 노자의 도는 실천하는 데에 많은 용기가 필요하며, 욕망을 덜어내야 하고 바르게 세상을 통찰할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노자의 도는 플라톤과 같이 배우고 익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우지 않고, 비워내야 한다. 세상에 정해진 규율이 없기에 세상에는 싸울 일이 없으며, 또한 그러하여도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사회라 노자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더욱 가지기 위해 노력하지만, 더욱 비우기 위해 노력하진 않는다. 또한 행복을 얻기 위해 여러 자기개발서 등을 읽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떠한 체계를 갖추려 노력하지만, 노자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구속하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노자는 더욱 상위의 물질이 아닌, 오히려 열등한 범주에 속하는 아이, 여성, 식물 등의 범주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배우고자 한다. 또한 노자는 자연의 순리르 따르라 하였지만, 자연의 순리를 파악하는 데에는 그를 통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만물을 차별하지 않는 자연의 관점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볼지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가령 현대 사회의 부를 중심으로 한 양극화의 상황에서는 이를 특정 집단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그들을 성인의 관점에서 양 측 모두에게 삶의 진리를 깨우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노자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것을 주장하고, 이를 통해 욕망이 없어진 상태에서 지속가능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4. 결론

따라서 우리가 현재의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욕망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더욱 더 질주해나가 돈을 버는 것을 중시할 뿐, 정작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잊고 살고 있다. 우리는 사회의 부속품이 아니라, 인간으로 실존함을 기억해야한다. 지구에는 지금껏 오랜 시간동안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태어날테지만, 그러한 무수한 사람들을 모두 더해도 살며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제 각각이다. 그렇기에 개인의 단 하나뿐인 세계는 모두 존중 받아야 마땅하고, 또한 그들이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행복을 느끼는 것은 더욱이 중요하다. 그러한 소중한 삶이 욕망으로 가득 차 혹사되고 불행에 빠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는 데에는 물론 타의적 영향이 더 크겠지만, 이는 또한 용기의 부족으로 비추어지기에 이를 이겨내고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통찰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플라톤과 노자는 우리에게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알려준다. 플라톤이 주장한 개인 내면의 가치 지혜, 용기, 절제가 현대에까지 이르러 여전히 고전으로 이야기되는 데에는 그만큼의 의의가 있다. 또한 노자의 철학 또한 여느 때보다 물질주의적 사고가 팽배해진 현 시점, 자연의 순리에 따를 것이라는 주장을 통해 우리의 사고를 역방향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전을 통해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와 추구해야할 방향을 다시 탐색하고, 우리가 지속가능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참고문헌

강수돌, 한국 사회에서 일·노동 - 지속 가능한 행복의 조건, 본질과 형상사, 2007.
권선영, 이선희, 고대 그리스 윤리학에서 행복 개념 -플라톤을 중심으로-,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09.

조승현, 과학기술은 지속가능한 행복경제 달성에 양날의 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